

고교 야구 '4대 천왕' 만났다

광주일고, 서울고 5-1 누르고 4강 마산·휘문·청원 등 전통 강호 합류



대회 5일째

13일 '속명의 라이벌' 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서울고의 8강 경기는 광주일고의 5-1 승리로 끝났다. 마산고는 '우승후보' 동성고를 5-2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고, '야구명문' 휘문고는 동산고를 3-2로 꺾었다. 청원고(옛 동대문상고)도 부천고를 7-2로 누르고 4강에 합류했다.

광주일고 5-1 서울고

투-타 모두 일고가 한 수위였다. 광주일고는 2회 무사 2-3루에서 7번 윤민섭의 중전안타가 터지면서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았고, 강민국의 적시타를 보며 3-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일고는 선발 양영

웅이 1회말 1사 이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흔들리자 바로 에이스 정성철을 투입하는 초강수로 위기를 수습했다. 3-1로 이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7회, 승부를 결정짓는 추가점이 터졌다. 연속안타와 폭투로 얻은 1사 1-3루 찬스에서 손명기의 타구가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지며 행운의 안타가 됐고 점수는 5-1이 됐다.

마산고 5-2 동성고

마산고는 1회 동성고 투수 조우상의 제구력 난조에 편승, 손쉽게 점수를 뽑았다. 1회 초 볼넷 3개로 만든 1사 만루에서 폭투 2개를 묶어 안타 하나 없이 2점을 먼저 뽑았다. 마산고는 6회 폭투로 만든 1사 3루의 찬스에서 강원형의 적시타로 1점을 보낸 뒤, 8회 또

다시 폭투와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점수를 6-1까지 벌렸다.

'우승후보' 동성고는 9회 2사 후 뒤늦게 3루타를 터트리며 반격에 나섰다. 1점을 쫓아가는데 그쳐 4강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휘문고 3-2 동산고

2회초 2사 2-3루에서 휘문고의 조승수가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인 후 한태용의 적시타를 곁들이며 3점을 뽑았다. 휘문고는 2회와 5회 연속 안타를 내주며 3-2, 1점차로 쫓겼다. 하지만 휘문고는 5회말 2사 1-2루의 위기에서 마운드에 오는 조승수가 4와 3분의 이닝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1점차 리드를 지켰다. 2회 2타점을 기록했던 조승수는 9회

말 3타자 연속 삼진을 포함해 4개의 삼진을 잡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청원고 7-2 부천고

활발한 타격을 자랑한 청원고는 부천고를 7-2로 제압하고 4강에 합류했다.

2회부터 김진만의 2루타를 시작으로 1점을 뽑은 청원고는 4회 상대의 실책과 적시타를 묶어 3-0까지 앞서나갔다. 6회에는 승부에 쐬기를 박는 소나기 안타가 터져나왔다. 4번 김성수의 3루타를 포함 4개의 안타를 연속으로 몰아친 청원고는 4점을 추가하며 7-2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부천고에 4개의 안타만 내준 투수 심규범과 박상욱은 11개의 삼진을 슈아내며 팀 승리를 자축했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 내일의 무등기 야구 <준결승전> 휘문고-마산고(오전 10시) 청원고-광주일고(오후 1시)



어이쿠! 아웃될뻔 했네

13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5일째 8강전 마산고-광주 동성고 경기. 5회말 동성고 공격 중 1루 주자 고영우(왼쪽)가 마산고 투수 견제구에 다급하게 귀루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등기 누구 품에...

4강 진출팀 전력 분석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팀은 누구일까? 지난 9일부터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2개팀이 참가 1차전부터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전을 펼치며 4강(휘문-마산고, 청원고-광주제일고)이 가려졌다. 대망의 우승팀은 오는 15일 준결승(오전 10시, 오후 1시)에 이어 16일 결승전(월요일 오후 6시)에서 결정된다. 4강에 오른 팀들의 전력을 분석한다.

마운드·안방 탄탄한 전력 자랑

■ 휘문고

1차전에서 부전승으로 체력을 비축한 휘문고는 경기감각을 회복하지 못해 2회전에서 유신고와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3-2로 힘겹게 3차전에 올랐다. 전열을 가다듬은 휘문고는 3차전에서 강호 동산고를 꺾고 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다. 에이스 좌완 허준혁과 우완 조승수가 지키는 마운드가 안정적이고 청소년 대표 포수 김재윤이 강한 어깨와 한 수 뛰어난 투수 리드로 안방을 지키고 있어 탄탄한 전력을 자랑한다. 다만 2게임에서 평균 득점 3점이라는 다소 약한 방망이가 약점으로 꼽힌다.

수비 안정 ... 다크호스로 부상

■ 청원고

1차전 부전승으로 쉽게 2회전에 진출한 청원고는 2차전에서 대구 상원고와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4-2로 제압, 상승무드를 탔다. 3차전에서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였던 부천고를 꺾고 4강에 안착했다. 투수 조근표(3년), 박상욱(2년)으로 이어지는 마운드가 안정적이다. 유격수 오승택(2년)이 지휘하는 내야수로 탄탄한 편이

클린업트리오 장거리포 막강

■ 마산고

1차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마산고는 공주고를 8-5로 꺾고, 우승 후보였던 광주 동성고를 5-2로 제압한 기세를 몰아 우승기를 품에 안겠다는 각오다. 클린업트리오의 파괴력이 눈에 띈다. 투수이자 3번타자인 박상혁(3년)이 2게임 7

타수 5안타(0.714)로 기회때마다 한 방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하고 있고, 4번 최재원(3년)은 9타석 6타수 3안타(0.500)로 뒤를 받치고 있다. 5번 강원형(3년)은 대회 1호 홈런의 주인공으로 언제든 장거리포를 가동할 수 있다. 다만 뚜렷한 에이스가 없는 마운드가 아쉽다.

투타 짜임새... 5번째 우승 노려

■ 광주일고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8강전에서 서울고를 가볍게 제압하고 대회 5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광주일고는 투·타의 짜임새에서 단연 최강이다. KIA타이거즈 1차지명을 받은 초고교급 투수 정성철(3년)과 장민제(3년)가 버티는 마운드는 최고를 자랑한다. 장민제가 선발로 나선 뒤 위기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정성철이 마운드를 이어받아 상대 타선을 공포 묶는다. 청소년대표에 뽑힌 3번 허경민(3년)과 4번 조영선(3년), 5번 정승인(3년)은 언제든 주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한 방을 자랑한다.

4강전부터 입장료 무료 ... X-ports 생중계

무등경기장 야구장, 야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생중계 : 15일(日) 오후 1시 준결승전(청원고-광주일고), 16일(月) 오후 6시 결승전

세트피스 강화 지성 공백 없다

월드컵 축구팀 오늘 밤 11시 투르크메니스탄전

더 이상 무력한 경기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깔끔하고 시원한 승리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진출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허정무호가 14일(한국시간) 밤 11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 올림픽스 타디움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3차 예선 3조 5차전 원정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무릎 이상으로 전열에서 빠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백과 체감기는 40℃까지 치솟는 무더운 현지 기후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옥의 원정 2연전' 마지막 관문인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앞둔 대표팀은 그동안 3차 예선을 치르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과 박지성의 결장에 따른 전술 다변화에 공을 들여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무3패(승점 1)로 이미 3차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태인 만큼 홈팬들 앞에서 적극적인 공격축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앞둔 허정무 감독은 전술변화의 핵심이었던 박지성이 요르단 원정을 마치고 오르쪽 무릎에 이상을 호소하면서 전력에서 제외되자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허 감독은 선수들이 기존 '4-3-3 전술' 외에 '3-5-2 전술'과 '3-4-3 전술'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주문했고, 터키 전지훈련 기간에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면서 박지성의 빈 자리를 채우도록 했다. 허정무호는 지금까지 8경기를 치르면서 12골을 뽑아내 경기당 1.5골을 기록했다. 이종 프리킥(2골)과 코너킥(1골)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과 박지성의 결장에 따른 전술 다변화에 공을 들여왔다. 허 감독 역시 이를 인식, 터키 전원에서 문전 프리킥 상황과 코너킥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크로아티아 '전차군단' 격파

독일에 2-1 승,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비겨



EURO 2008 Austria

크로아티아가 2008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유로 2008)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전차군단' 독일을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공동 개최국 오스트리아는 폴란드와 비겨 탈락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동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는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베크테르제 슈타디움에서 펼쳐진 유로2008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다리오 스프라와 이비차 올리치의 연속골로 루카스 포돌스키가 1골을 만회한 독일에 2-1 승리를 거뒀다. 오스트리아와 1차전에서 1-0 승리를 따낸 크로아티아는 2연승을 달리며 조 1위로 올라섰다. 크로아티아는 이어진 오스트리아-폴란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17일 폴란드와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8강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A조 1위 포르투갈에 이어 두번째 8강 확정이다.

우즈 '무난한 출발' ... '탱크'는 49위

US오픈 골프 1라운드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1·7천643야드)에서 막을 올린 제108회 US오픈골프 1라운드에서 무릎수술 후 2개월만에 실전라운드를 치른 '황제' 타이거 우즈는 버디 3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2개를 곁들여 1오버파 72타를 쳤다. 3언더파 68타를 때려 깜짝 선두에 나선 무명 선수 저스틴 히스, 케빈 스트림턴(이상 미국)에 4타 뒤진 공동 19위. 지난 달 하순 골프제를 잡았고 연습라운드도 카트를 타고 돌았던 우즈는 "샤이 아주 좋았다. 왼쪽으로 당겨치는 실수가 두어번 나왔지만 금세 교정이 됐다"고 거듭 만족감을 표기했다. 326야드에 이르는 초장타를 뽑아낸 우즈는 페어웨이 안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린 적중률은 61.1%에 이르러 11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다.

루니, 동갑내기과 호화 결혼

영국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웨인 루니가 어린 시절 친구 폴린 맥러플린과 호화 결혼식을 올렸다. 22세 동갑인 두 사람은 이탈리아 휴양지 산타 마르케리타 리구레의 17세기 성에서 비가 퍼붓는 가운데 12일 결혼 서약을 교환했다고 BBC가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과 피로연 등에 500만파운드(약 100억원)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토)

▲유로 2008<이탈리아> : 루마니아(01 : 00·MBC ESPN)<네덜란드> : 프랑스(03 : 30·MBC ESPN) ▲2008 US 오픈 골프 2R(05 : 30·MBC ESPN) ▲2008 프로야구<두산> : 삼성(16 : 10·SBS스포츠)<우리> : 롯데(16 : 30·KBS N SPORTS)<LG> : 한화(16 : 50·XSPORTS) ▲남아공월드컵축구 아시아 3차예선(한국 : 투르크메니스탄)(22 : 50·KBS2)

15일(일)

▲유로 2008<스페인> : 스페인(01 : 00·MBC ESPN)<그리스> : 러시아(03 : 30·MBC ESPN) ▲2008 US 오픈 골프 3R(05 : 30·MBC ESPN) ▲2008 프로야구<두산> : 삼성(13 : 40·SBS스포츠)<우리> : 롯데(16 : 00·KBS N SPORTS)<LG> : 한화(16 : 50·XSPORTS) <기아> : SK(17 : 00·MBC ESPN)

16일(월)

▲유로 2008<스위스> : 포르투갈(03 : 30·MBC ESPN)